

다시 기본으로...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땅에서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원조 유기농 와인 美 본테라

포도 없이도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와인 생산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포도주에 포도가 없어도 될 정도로 넣는 첨가물이 많아졌다는 자조적인 비유다.

지금이야 내추럴 와인부터 유기농 와인, 바이오다이내믹 와인까지 친환경이 트렌드지만 1980년대만 해도 포도밭엔 제초제와 비료를 쏟아부었고, 와인을 만들 때는 첨가물을 넣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멘도치노에 자리를 잡은 와이너리 본테라는 1987년 설립 당시부터 단순한 유기농 와인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를 핵심 가치로 뒀다. 와인 양조 역사가 오래된



(왼쪽부터)본테라 에스테이트 콜렉션 카베르네 소비뇽, 본테라 카베르네 소비뇽, 본테라 더 맥넵, 본테라 소비뇽 블랑. /아영FBC

유럽이면 몰라도 미국에선 개념조차 생소할 때였다.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 좋은 땅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에서였다. '본(Good)+테라(Earth)'라는 이름 자체도 라틴어로 좋은 땅이란 뜻이다.

유기농이란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포도밭이 촘촘히 영그는 만큼 사이사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병충해의 피해도 다반사다. 포도가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받쳐줘야 한다.

이소리 소물리에는 "유기농으로 포도를 재배하려면 건조하면서 시원하게 순환이 잘되는 기후가 갖춰져야 한다"며 "멘도치노 카운티는 건조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면서 해안가에서 시원한 공기가 유입되는 천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본테라는 화학 비료와 살충제나 제초제는 쓰지 않는다. 첨가물도 와인의 산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아황산염만

기존 와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서 쓴다.

본테라는 재생 유기농법 인증과 바이오 다이내믹 농법 관련 데메테르 인증은 물론 전세계 와이너리 가운데 처음으로 트루 제로 웨이스트 인증과 비콕 인증까지 받았다.

포도를 건강하게 키웠다고 해도 와인의 맛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착한 와이너리라고 한들 맛의 수준이 선한 영향력을 따라 오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터.

그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본테라 와인이 빛을 본 것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1위에 오르면서다.

'본테라 에스테이트 콜렉션 카베르네 소비뇽'은 작년 10월 열린 '서울의 심판'에서 레드와인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맛으로도 인정을 받은 순간이다. '서울의 심판'은 1976년 프랑스 파리에 열렸던 '파리의 심판'의 한국판 행사였다.

와인을 소재로 한 유명 만화 '신의 물방울'의 작가 남매 중 누나인 기바야시 유코는 이 행사에 참석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프리 사이즈의 트렌디한 벨벳 재킷이 떠오르는 와인"이라고 평가했다.

본테라의 카베르네 소비뇽은 기존 미국의 오크 풍미가 짙은 와인을 생각하면 안된다. 시원한 해안 기후에서 포도가 천천히 잘 익으면서 과실미는 물론 산미를 잘 갖추고 있다.

'본테라 에스테이트 콜렉션 카베르네 소비뇽'은 검붉은 과실향과 함께 숙성에 따른 연필심과 가죽 등 아로마가 복합적이다. 타닌은 골격이 잘 갖춰졌지만 무겁지 않으며, 잘 살아있는 산미와 균형감이 좋다.

이 소물리에는 "요리로 치면 가능한 좋은 재료를 구해 자체의 맛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조미료 등은 쓰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맛을 떨어내는 것과 같다"며 "아무리 뛰어난 소물리라고 해도 유기농 와인인지 아닌지 테이스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첨가물 등이 없이 포도 본연의 맛을 강조한 좋은 와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롯데컬처웍스, '더 테러 라이브 : 라스트 쇼' 예고편 공개

지난 2013년, 약 558만 관객을 돌파한 김병우 감독, 하정우 주연의 스릴러 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일본 리메이크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더 테러 라이브 : 라스트 쇼'가 테러 협박의 생방송 모습을 담아 긴장감 넘치는 메인 예고편 영상을 국내 최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평화로운 어느 날, 라디오국으로 걸려온 전화 연결을 통해 아마토 전력 조도 화력 발전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그놈'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단순한 장난 전화로 여긴 '오리모토' (아베 히로시)는 "해보시던가"라는 심드렁한 대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2분뒤 실제로

발전소가 폭발된 것이 확인되자 당황한 기색의 모습을 담아냈다.

이어 테러범이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연속 폭탄 테러 생중계라는 특종 상황을 재기의 기회로 삼고자 마음먹고 결연한 모습의 '오리모토' (아베 히로시)의 계산적이면서도 뾰족까지 '방송쟁이' 모먼트를 통해 이후 전개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감을 보여준다.

테러범이 지목한 유일한 협상가 '오리모토' (아베 히로시)만이 범인을 설득할 수 있고, 그의 선 넘는 도발이 점점 더 거세져 가는 가운데 '지상 최악의 라이브'가 시작된다'는 문구는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예고편만으로도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 전개와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더 테러 라이브 : 라스트 쇼'는 4월 국내 극장가를 뒤흔들 다크호스로 부상할 전망이다.

생방송과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리얼타임 서스펜스 엔터테인먼트로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 라스트 쇼'는 오는 16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

메가박스, '아마추어·아키라·야당' 돌비 시네마 상영

메가박스가 극장의 판도를 뒤집을 4월 개봉작 세 편 '아마추어', '아키라', '야당'을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한다. 이번 상영작들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압도적인 비주얼과 사운드로 한층 더 몰입감 있는 영화 관람 경험을 선사한다.

9일 개봉한 '아마추어'는 현장 경험이 전무한 CIA 암호 해독가 '찰리 헬러'가 살해된 아내의 복수를 위해 자신만의 탁월한 두뇌와 기술로 거대한 테러 집단에 맞서는 작품이다.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를 열연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라미 말렉이 CIA 암호 해독가로 변신해 선보이는 섬세한 연기와 강렬한 카리스마는 돌비 비전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전달되며, 기존 스파이 스릴러와 차별화된 캐릭터를 표현한다.

1991년 개봉해 사이버펑크 장르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아키라'도 9일 돌비 시네마에서 재개봉했다. 제3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도시 '네오 도쿄'를 배경으로 오토바이를 몰며 폭주를 일삼던 소년 '카네다'가 초능력을 얻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16일에는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등 탄탄한 배우진의 '야당'이 개봉한다.



대한민국 마약관을 설계하며 이익을 보는 브로커 '야당', 더 높은 곳에 오를려는 '검사', 그리고 마약 범죄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엮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지는 범죄 액션 영화다.

메가박스는 2020년 7월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돌비시네마 국내 1호점을 공식 개관했으며 안성스타필드점 등 총 8개의 돌비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은 책과 함께

"신민으로부터 미움 사지 않아야"

"아빠는 18년 동안 대통령 1명인 시대에 살았는데 난 8년 동안 대통령 4번 바뀌는 시대에 산다", "그러니까 초6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일한 대통령을 문재인 한 명 봤다는 거지?" 이는 최근 SNS 상에서 화제가 된 두 개의 트윗(게시글)으로, 각각 현재 조희수 340만 회·좋아요수 3.7만건, 조희수 78만회·좋아요수 2만건을 기록 중이다.

약 50자 안팎의 짧은 두 글이 이토록 인기를 끈 건 지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촌철살인의 문구로 축약해놓았기 때문일 터. 우리는 이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은 탄핵당하는가'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게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철칙은 하나다. 바로 신민으로부터 미움을 사지 말라는 거다. 지켜야 할 건 오직 하나. 그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지 말 것.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라 설명하는 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내내 이 말을 명심하라고 조언한다.

"군주가 상식 밖의 사악한 비행으로 미움을 사지 않는 한 신민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군주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건 탐욕적이어서 신민들의 재산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강정인, 김정희 옮김
까지(까지출판)

과 부녀자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만은 피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지 않으면 만족해서 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책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다.

군주가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음모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이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마키아벨리는 "인민이 군주에 호감을 품고 있다면 음모를 걱정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인민이 적대적이고 그를 미워한다면, 매사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한다. 267쪽. 1만원. /김현정기자 hjk1@



-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차 방류 시작... 28일 완료 /사진뉴스
- ▲ 美민주, 머스크 축출 시동... 트럼프에 "5월 사임 공식화" 요구

- ▲ 레고, '초고굴 관세' 베트남에 1조5000억 투자 공장 완공
- ▲ 中, 美 관세폭탄에 84% 보복관세 발효... 미중 '치킨게임' 격화

- ▲ "대만, 美 상호관세 부과되면 올해 성장률 2% 밀릴 듯"
- ▲ 인도, 방글라 육로 수출길 차단... 네팔·부탄·중국 수출 막혀